

01 교회소식

연단은 소망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사역에 힘쓰며 신앙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만민의 해외 지교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가나안 정복사' 시리즈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된다.

03 해외에서 온 편지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기회라 고백하는 아르헨티나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의 서신.

04 간증

"삶의 기쁨을 되찾았어요~"

이석증, 눈 통증 등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을 치료받고 삶의 기쁨까지 되찾게 되었다는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922호 2020년 6월 2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이재록 목사의 **기** 칼럼

## 소나무처럼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는 예로부터 나무 중에 으뜸이라 칭송받으며 그림과 문학작품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나무의 모양이 기품 있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도 곳곳이 잘 자라는 생명력과 강인함 또 사시사철 푸른빛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소나무의 푸른빛처럼 한결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하나님께 대한 절개를 지킨 사람들을 칭찬하시며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브리서 3:14)

## 우크라이나,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마라톤기도회' 진행

우리 교회 지교회인 우크라이나 '천국의 문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을 축소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소규모 구역 모임을 활성화하여 마라톤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도회는 한 구역이 한 주씩 교대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회 일꾼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뜨겁게 간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천국의 문교회'는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가정에 음식을 제공하는 등 구제에 힘쓰는 한편, 교회 일꾼들이 소셜미디어와 전화를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다. 담임 유리 코노발로프 목사는 "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들만 받고 있어 일반 환자들은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에겐 연락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몰도바, 성도들 안부 영상으로 서로를 격려

몰도바만민교회는 모든 종교 집회 및 행사가 금지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안부 영상을 촬영하여 서로서로 보내주며 위로와 힘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결속을 다지며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편 주일과 금요철야예배는 우리 교회 러시아어 예배 통역을 실시간 녹화하여 현지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에는 성도들이 구역별 혹은 가정단위로 모여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며 교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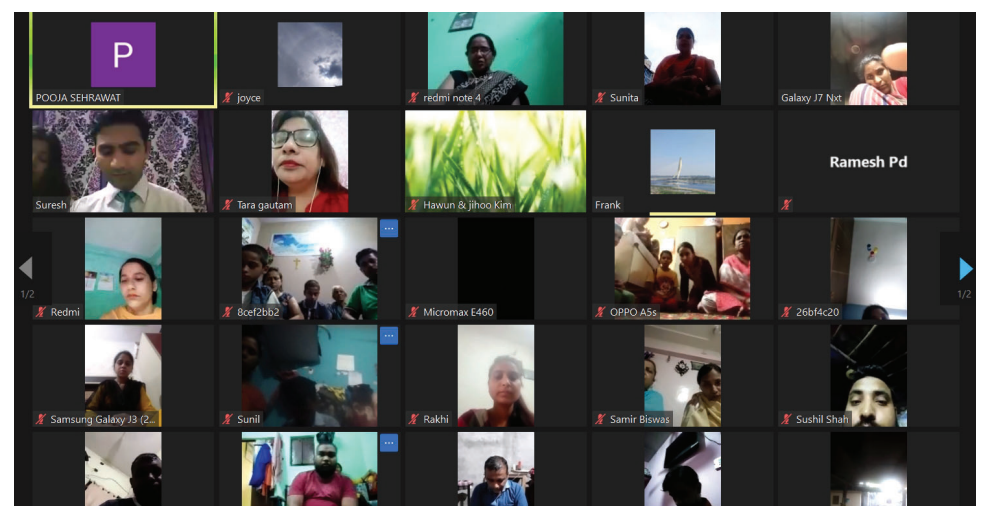
특히 매일 밤 리더 알렉산드르 파바라누 선교사가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인도하여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다.

## 인도, ZOOM 통해 화상예배 및 성도들과 소통

코로나19 속에서 인도 텔리만민교회(담임 김상휘 목사)는 우리 교회 대예배 및 저녁 예배를 동시 화상예배로 드린 후, ZOOM(화상 회의 및 모임 가능한 앱)을 통해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하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채팅 창에 올라온 질문과 기도 요청에 응대하며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 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이동 제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믿음을 독려하는 시간으로 정착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진행하고 있는데, 성도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텔리만민교회 성도들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일터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면,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통해 각종 질병을 치료받는 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민수기 14:6~9)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긴 광야 생활을 거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훨씬 가깝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것을 아시고 이를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1.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바로 아래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두 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족장을 뽑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믿음이 자라는 만큼 스스로 축복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두 명의 족장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니 그곳은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토질은 비옥하고 과일과 소산들이 아주 탐스러웠지요.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壯大)하고 매우 건장해 마치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와 같았고,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작고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성읍 역시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을 듯이 보였지요(신 1:28).

열두 명의 정탐꾼 중에 열 명은 이러한 현실을 보고 그만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족장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열 명의 정탐꾼들이 들려주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들으며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밤새 탄식하며 통곡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민 14:1~4).

## 2. 영적 고백으로 시험에 통과한 여호수아와 갈렘

이때 열두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렘 두 사람은 백성들의 믿음 없는 행함을 보고 애통하여 옷을 찢으며 호소합니다(민 14:6~9).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지요. 하나님께서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믿음의 테스트를 한 결과,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이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시 37:4 ; 히 11:6).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렘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악한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한 보응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던 입술의 고백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십 세가 되지 않은 그 후손들에게로 옮겨졌고, 그들 역시 부모의 죄로 인해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을 각각 1년씩으로 환산한 것이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과 탄식하게 했던 열 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민 14:36~37).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결단코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하되,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으며,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입니다. 광야에서는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셨지요. 낮에

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과 믿음 없음은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 3.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단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 명의 정탐꾼이 재앙으로 죽은 후에야 후회하며 슬퍼했습니다(민 14:39~40). 지금이라도 가나안 거민들이 사는 성읍을 공격해 들어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모세는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백성들을 만류했습니다(민 14:41~43). 그럼에도 그들은 가나안 산지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는데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지요. 무조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간다 해서 그것을 순종이라 할 수 없고 믿음이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산지로 올라간다고 해서 전날까지 없었던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로서는 무턱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고 정녕 영적인 믿음을 소유함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중심에서 회개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의 징계를 모면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무마하려는 마음으로 또 한 번의 불순종을 낳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뼈저린 패배의 아픔을 맛보았고, 결국 40년 동안 고달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처럼 광야에서 유리하는 징계를 받고서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끝내 마음에서 악을 버리지 못했으며 믿음을 가지지도 못했지요. 이들의 악한 마음은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임하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을 일으키고 마는데, 바로 고라 일당의 반역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레위 지파의 고라가 유력한 족장들 중 250명을 꺾어 그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한 것입니다(민 16:2). 게다가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다단과 아비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모세의 탓으로 돌렸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즉시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일족 모두가 산 채로 음부에 빠진 것입니다.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250명의 족장들 역시 분향하는 향로에서 나온 불로 인해 일시에 죽고 말았지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만일 그들이 광야에 유리하는 징계를 받았을 때 자신들의 악함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며 망령된 말을 하는 고라 일당에게 동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고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니 염병이 시작되고

일만 사천칠백 명이 죽게 되었지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과 아론에게서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여 각각의 이름을 적은 후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막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두 개 중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잎이 나며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 믿음을 심어 주고 증거를 주시지요.

그러나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떨어지거나 매일 먹는 만나에 싫증이 나면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까(민 20:2~5).

시간은 흘러 출애굽 당시의 아이들이 장성해 이스라엘의 주축이 되고 어느덧 40년의 기한이 거의 찼습니다. 이제 광야의 방랑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봄으로 다시 나아가갈 때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함

으로 광야에서 죽었으며, 모세와 아론 역시 그들의 머리 된 책임을 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렘만은 다음 세대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렘이 장대한 가나안 거민들과 튼튼한 성벽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쫓과 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 14:8) 한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입니다. 범사에 여호수아와 갈렘같이 정녕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에서 온 편지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 (아르헨티나만민교회)

“지금도 바로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3월 24일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배, 기도회, 지역모임, 성경모임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교회는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물론 라틴아메리카, 러시아, 일본, 한국, 인도, 스페인, 미국, 파키스탄 등에서도 저희 온라인 예배를 시청합니다.

수년간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는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흐뭇한 간증들을 듣습니다. 자녀와 남편들이 당회장의 설교와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자녀들이 먼저 페이스북에 연결하는 시간을 기억하여 가족이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그 다음 날 그것으로 은혜를 나누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저희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당회장의 설교는 단순하지만 영적으로 매우 깊이가 있어서 전에는 죄인 줄 알지 못했던 비진리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성경 공부는 주 3회 저녁 9시, 당회장의 저서 ‘십자가의 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많은 시청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거나 당회장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상영합니다. 이어 10시에 콜롬비아만민교회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동참합니다.

이 밖에도 저희는 전화나 왓츠앱을 통해 교회 성도님들과 아르헨티나만민교회의 협력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담과 기도 요청도 늘고 있지요.

아르헨티나만민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플로렌시오 바렐라, 보스게스, 로마스 데 싸모라, 베라싸페기, 그리고 협력교회가 있는 산티아고 델 에스페로, 뚜꾸만, 살파 지역에서 옷과 음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기름, 쌀, 국수, 설탕, 마

때 잎, 티, 소금 등 15가지 식재료가 담긴 ‘만민의 사랑’ 봉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아르헨티나만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일부 상인들과 기업인들의 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플로렌시오 바렐라 지역 내 협력교회들과 인력한 삶을 뒤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호세 비데라와 메르세데스 로페스 목사 부부와 3년 전부터 이곳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자체, 사회단체들, 사업가 및 현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과의 좋은 유대 관계 속에 음식, 옷가지 등을 지원받아 3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매일 무료로 나눠주며 성경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뿐 아니라 구원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 있지요.

그리고 치료의 역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음식과 옷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뚜꾸만과 산티아고 델 에스페로 지역에도 매일 음식을 나눠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지금도 바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임을 느끼며 하루하루가 바쁘고 또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잘 인내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순애 집사 (74세, 2대대 15교구)

## “이석증을 치료받아 행복합니다!”

2019년 9월, 잠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갑자기 쓰러져 깜빡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걸었고 그러다 다리까지 꼬였습니다. 힘이 없어 걷다가 주저앉기도 했지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지럽고 글자가 흔들려서 성경을 전혀 읽을 수 없으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아지겠지’ 하며 견디다가 자녀들의 성화에 못이겨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이석증이었고, 심각한 상태라 하여 약도 먹어보고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시 전문병원을 찾아 귀에 돌을 넣는 방법까지 사용해 보았지만 이것도 잘되지 않아 밖에 나가는 것은 엄두도 못낸 채 고통을 견디며 지냈지요. 그런 가운데 제 신앙을 더욱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은사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나?’ 저는 하나님께 꼭 치료받겠다 결단하며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집회에 가서 보니 성령의 불세례가 어찌나 뜨겁게 임하던지 겨울임에도 등에서 후끈후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날 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던 저는 삽질로 분야가 마음

에 걸렸습니다. 평소 생활비에 대해 심의 일조를 드리는 했지만 자녀들이 비싼 옷들을 사다주곤 하니 아예 대한 심의 일조로는 부족한 것 같아 항상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요. 아예 다달이 조금씩 모아 놓은 것으로 심의 일조를 온전히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으니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마음이 너무도 가벼워졌습니다.

그 주 기도원 집회에 다시 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음이 뜨겁고 기쁨이 넘쳤지요.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복님 원장님의 멘트가 마음에 와 닿아 통화자복 하고 난 뒤에는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금요철야예배 은사집회 시, 저는 이수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아 직설적이고 때로 욱 하는 성격을 회개하였습니다. 그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미세하게 남아 있던 머리가 땅한 증상까지 치료받았지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지럽지 않아 잘 걷고 하고 싶은 일도 다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더욱이 아주 작은 글씨의 성경도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정말로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시공 초월한 권능의 기도로 안경이 필요 없게 됐어요!”

살리니 성도 (37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저는 고질적인 눈의 통증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아 보았지만 좋아지지 않았고 시력도 약화되어 여러 번 안경을 바꿔야만 했지요. 안경 없이는 바느질도 못하고 그 무엇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시력이 너무 나빠 안경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며 눈 통증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급해진 저는 목사님께 기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2019년 12월, 유튜브를 통해 검색하던 중 델리만민교회를 알게 되었지요. 그곳에 연락했는데 상담해 준 일꾼이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은사집회가 열리는데 유튜브 ‘GCNTV HINDI’ 채널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삽자가의 도> 시리즈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삽자가의 도>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 ‘선악과를 두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이유’ 등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악몽을 꾸던 것도 사라지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지요.

또한 갖가지 질병이 치료된 성도들의 간증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치료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고, 3일 금식기도를 드리며 은사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가곤 했지만 대부분

몸이 아픈 시간들을 보냈던 저는 지난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회개하였지요.

드디어 2020년 1월 31일, 유튜브를 통해 은사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수진 목사님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신 뒤, 저는 눈의 통증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지요. 이뿐 아니라 시력까지 좋아져 안경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 설교를 들던 중 고질적인 어깨 통증까지 사라져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요즘 자인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GCNTV HINDI’로 각종 예배를 드리고 ZOOM을 통해 은혜의 시간도 가지며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도 시력 때문에 일을 잘 못해 동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제게 그만두라고까지 했는데, 지금은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으며 오랜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되었지요. 저는 만민교회를 만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참된 행복을 얻었습니다. 치료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미디어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999-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향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동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